77

◇폐암의 외과적 절제 수술후 장기성적

이재웅, 김영태, 성숙환, 김주현

서울대학교병원

배경 및 목적 :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에서는 과거 10년간의 수술성적을 기초로 하여 절제 가능한 폐암 환자에 관한 통계 및 생존율을 밝히고자 하였다.

방법 : 1987년 1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는 총 1086명의 환자가 수술 전 폐암을 의심하거나 진단 받았으며 이들 환자 중 71명이 수술 후 양성으로 밝혀졌으며 1015명이 악성으로 판명되었다. 이들 환자 중 64명이 타 장기에서 폐로 전이된 환자였으며 나머지 951명의 환자가 폐암이었다. 본 연구에서는 이중 절제 가능한 70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종양의 병기별 생존율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

결과 : 환자의 남녀비는 82:18로 남자가 월등히 많았고 수술 당시의 평균 연령은 58.15±9.42세였다. 수술 전 일부 환자에서는 방사선 치료 및 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며, 종양의 위치 분포는 우상엽이 157례, 우중엽이 34례, 우하엽이 128례, 좌상엽이 183례, 좌하엽이 80례였다. 수술 에 사용한 술식 별로는 엽절제술[lobectomy] 술식을 사용한 경우가 379례로 가장 많았고, 그밖에 폐절제술[pneumonectomy]이 209례, 완전폐절제술[completion pneumonectomy]이 12 례, 이엽절제술[bilobectomy]이 71례, 쐐기절제술[wedge resection]이 29례, 분절절제술 [segmentectomy]이 2례였다. 폐암의 세포형은 편평상피세포암종이 367례, 선암종이 170례로 두가지 세포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, 기관세지폐포암종[bronchioloalveolar carcinoma] 47 례, 대세포암종 45례, 선암-편평상피암종 21례, 소세포암종 11례, 기타 카르시노이드 [carcinoid] 등이 있었다. 종양의 병기는 상피내 암종 2례, IA 100례, IB 263례, IIA 30례, IIB 145례, IIIA 100례, IIIB 25례, IV 18례였으며, 17례에서는 병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. 수 술 사망 환자를 제외한 장기 생존자 중 근치적 절제가 가능했던 702명의 환자의 생존률은 2 년 73%, 5년 57%이었다. 병기별 5년 생존률은 각각 IA 78%, IB 65%, IIA 59%, IIB 47%, IIIA 28%, IIIB 50%였고 IV 환자는 45개월 내에 모두 사망하였다.[Kaplan-Meier]

결론 : 이상의 결과로부터 폐암에 대한 외과적 절제술은 수술로 비교적 우수한 생존율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조기발견의 경우 약 80%에 근접하는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는 바 추후 폐암에 대한 정기검진, 종양 표식자 등 보다 많은 조기 진단 방법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. 또한 장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수술 전, 수술 후 화학요법 혹은 방사선 요법 등을 병합하여 치료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 예후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여겨진다.